<이펍> -> 이펍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암기 : 세미나 시간, efub 줄임자, 인재개발원 커리어 클럽 소속

- **지원동기 :** EFUB은 제 정체성의 교집합입니다. 첫 번째로 제 꿈은 웹 개발자입니다. 저는 1학년 때 컴퓨팅 교양을 들은 뒤로 개발에 흥미가 생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. 개발에 흥미가 생겼던 이유는, 컴퓨터에 명령을 내렸을 때 시각적으로 구현되는 것이 재미있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. 이러한 이유는 다양한 cs 분야들 중 시각적으로 웹 화면을 구성하는 프론트 엔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. 두 번째로 성장이라는 가치입니다. 이펍은 타 동아리와 달리 인턴 개발자로 세미나를 듣다가 후에 리드 개발자로서 세미나를 준비합니다. 세미나를 듣거나 개인 스터디를 하는 것보다 부원들끼리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고 또 리드 개발자가 됨으로서 혹은 되기 위하여 더 공부하면 그만큼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펍에 지원했습니다.

- **간단한 자기소개 :** 저는 이소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21학번에 재학 중이고, 현재 컴퓨터공학과 복전 및 전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제 막 웹개발과 cs 지식을 쌓고 있어서 호기심과 열정이 가득한 상태이고요, 이펍에서 다양한 협업과 교류를 통해 성장하고 싶습니다.

​

- **이펍이 하고싶은 이유 :** 이펍은 타 동아리와 달리 인턴 개발자로 세미나를 듣다가 후에 리드 개발자로서 세미나를 준비합니다. 세미나를 듣거나 개인 스터디를 하는 것보다 부원들끼리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고 또 리드 개발자가 됨으로서 혹은 되기 위하여 더 공부하면 그만큼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펍에 지원했습니다. 기술 면접 준비 등 다양한 취업 측면의 기회로 발전도 가능해서! / 인재개발원 소속 커리어 클럽 학교에 직접적인 지원 / 봉사활동 / 선배님 특강 /

- **이펍은 무엇을 하는 동아리인가?** 웹 개발 동아리 / 공모전 및 해커톤 / 인턴 개발자 -> 리드 개발자 : 지식과 경험 축적 / 우수개발자 시상 / 번개 모임 / 전시회

- **다른 동아리와 다른 이펍만의 장점이나 매력 :** 1. 이화여대 내 유일무이한 웹개발 동아리 – 같은 이화여대 학생들과 집중하고 몰입하는 분위기에서 공부 가능, 2. 세션 나가면 과제 + 개별스터디 + 공모전 등 개인의 참여도에 따라 얻는 것도 많다고 들었음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화여대 특유의 도전 정신도 있는 동아리 같음

- **왜 굳이 학원이 아닌 이펍에서 웹개발을 공부하고 싶은가?** 다수의 개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하는데 우선 학원은 개개인이 돈을 지불하고 강의를 수강하고 개인적으로 스터디 및 과제를 수행하는 분위기 / 하지만 개발은 최종적으로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, 협업 경험이 굉장히 중요함. 그런 것이 기본값인, 소통과 교류가 기본값인 동아리에서 웹개발을 공부하고 싶음.

- **이펍에서 무엇을 얻어가고 싶은가?** 협업 경험, 개발자를 꿈꾸는 동문들, 실력 향상

​

- **나의 장단점 : 저는 극강의 j형으로,** 짜여진 계획이 틀어지면 불안함을 느끼는 단점이 있는데, 최근 이를 보완하기 위해 plan b를 수립하고, 계획이 틀어져도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 여유를 가지려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 합니다. 이러한 노력은 오히려 더 질좋은 준비성과 계획성이라는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장점으로 승화시키려 노력 중이다. 더 나아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비슷한 맥락으로 ,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자세가 장점입니다.

**-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:** 긍정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상황을 바꾸기 어렵다면 생각을 바꿔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. 예를 들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다 혹은 지금은 부정적인 것이 나중에는 긍정적인 것으로 바뀐다 라고 여깁니다. 또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여유가 생기고 사고가 유연해져서 해결책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.

**- 본인을 뽑아야 하는 이유** :이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: 지속성(유의사항 모든 활동 참가가능)과 협업(다같이 함께 배워가며 성장)이라고 보았는데 저는 이 두가지 가치를 모두 추구하는 사람이다. 저는 이번학기부터 개발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아르바이트, 기존에 있던 다수의 동아리와 교내활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이펍에 매우 집중할 것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. 또한 처음 개발공부를 할 때는 개인적인 개발 실력만 늘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팀원들과 협업해야하고 또 협업을 하면서 실력이 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협업을 경험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. 그래서 프로젝트나 스터디 등 다같이 하는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팀원이 될 것 또한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.

**- 코딩 할 때 추구하는 가치 :** 서비스의 본질은 ‘문제해결’. 사용자가 어떤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테크 측면에서 해결해주는 ‘문제 해결사’가 개발자라고 생각하며 그런 문제해결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.

- **지원서로 제출한 '만들고 싶은 서비스'에 대한 간단한 설명 :** 웹툰은 예고편이 없어 예측이 어렵습니다. OTT 플랫폼처럼 장르/별점/회차수/작가 등을 선택하면 웹툰을 추천해주고 스포o/x를 선택해 후기도 쓸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고 싶습니다.

Efub 사이트를 동아리 부원끼리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의 기능을 추가해보고 싶습니다. 로그인한 부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들고,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코드를 업로드하고 그것에 대해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기능(댓글이나 메모 등)을 삽입하는 것입니다.

웹 한인타운입니다. 해외 경험/대학원/취업 등에 관한 정보는 흩어져 있어 찾기가 어렵습니다. 따라서 비자, 잡마켓, 언어 공부, 한인 분포 지도 등에 관한 메뉴를 만들어 소통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습니다. SAGE EWHA와 협업하는 것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.

- **열정을 가지고 일했던 경험 :**

- **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:**

​

**- 갈등 조절 방법 :** 제가 당사자이든 아니든 이렇게 해결할 것 ;쿨타임 /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함 -> 비난이 아니라 상황을 판단하고 대화를 해야함 ->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를 함 -> ice breaking을 하기 위해 노력 (그 이후에 노력하지 않으면 화해가 무용지물되고 아직 감정이 남아있다고 오해를 해서 다시 갈등이 시작됨)

**- 팀 프로젝트 경험 : 녹원 교지 동아리 경험**

**- 협업을 할 때 중시하는 가치 :** 다양성 측면 - 다양한 의견 수렴 그렇지 않으면 혼자 개인프로젝트하는 것과 다른게 없음. / 공존 측면 - 여러 사람이 당연히 의견이 상이하기 때문에 조정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골고루 수렴해야 함.

**- 팀장과 팀원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가?** 또 이펍에서는 리드 개발자, 인턴 개발자 모두를 경험할 수 있고, 사실 어느 쪽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// 저는 좋은 리더를 만드는 것을 좋은 팔로우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리더가 맡긴 일을 책임감있게 수행하고 또 리더의 긍정적인 면은 칭찬하고 그렇지 못한 점은 용기있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팔로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

**- 팀원들과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할 것인가?** - **내 아이디어를 관둬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?** :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라면 따르겠다고 이야기했다. 내 아이디어가 반려된 납득할만한 이유가 분명 존재했을테니까. 반려된 내 아이디어는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시 보완하여 다른 프로젝트에서 다시 도전해볼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.

**- 팀장의 입장에서 팀원이 잘 따라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?**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깊이있게 상담을 해줄 것 같다. 그리고 질문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는 멘토 역할을 자처하여 질문을 많이 받아주면서 성장하도록 도와줄 것 같다.